



하이원, 500실 한정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출시

하이원리조트는 500실 한정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를 내놓았다. 객실, 식료, 부대시설 이용에 식음영업장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상품구성을 했다. 호텔 투숙객은 사우나,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마운틴콘도 고객은 스카이1340(관광관돌라), 양궁장, 롤러링 등 즐길 수 있다. 정상가 대비 최대 74% 할인한다. 11월 29일까지 구매 가능하다.

신동빈 롯데 회장, 동남아 랜드마크 프로젝트 본격 시동

“베트남 대형복합단지·인니 석유화학단지 조성”

(인도네시아)

롯데가 동남아 랜드마크 프로젝트의 본격 시동을 걸었다. 베트남에서는 건설과 유통 인프라를 총 집결한 '스마트 단지 프로젝트'를 착공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조성 사업인 '라인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다.

베트남 스마트 주거·유통단지 개발 AI·로봇 등 통해 새로운 경험 제공 2024년까지 통합물류센터도 구축 인니에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조성 “롯데 경쟁력 강화…현지 발전 기여”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착공

먼저 2일 베트남 독립기념일에 맞춰 호찌민시 투티엠 지구에서 ‘투티엠 에코 스마트시티’ 착공식을 진행했다. 베트남 호찌민시의 투티엠 지구 5만㎡ 부지에 지하 5층~지상 60층 규모의 쇼핑몰 등 상업 시설과 함께 아파트, 오피스, 호텔 등으로 구성된 대형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투티엠 지구는 호찌민시가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를 벤치마킹해 동남아를 대표하는 경제 허브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고급 주거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동서 고속도로가 인접해있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총 사업비 9억 달러(1조 2267억 원)를 투자해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를 단순 복합단지가 아닌 롯데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유통 노하우를 접목해 베트남 최초의 최고급 스마트 단지로 완공할 계획이다.

주거시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정보 공유로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며,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홈케어 서비스, 원격 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피스에는 안면인식 스마트 출입 시스템과 인공지능 예약 관리 시스템, 유통 시설에는 롯데의 오랜 유통 노하우를 활용한 스마트 결제, 드론, 배달 로봇 등을 적용한다. 호텔은 스마트 컨시어지 서비스 및 로봇을 활용한 케이터링 등 기존

LỄ ĐỘNG THỔ DỰ ÁN LOTTE ECO SMART CITY THỦ THIÊM
Ground Breaking Ceremony of LOTTE Eco Smart City Thu Thiem

▲롯데가 동남아 랜드마크 프로젝트의 본격 시동을 걸었다.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에서 4번째)과 판 반 마이 베트남 호찌민시 인민위원장(3번째) 등이 2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린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착공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8월 29일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방문한 신동빈 롯데 회장(앞줄 맨 왼쪽). 사진제공 롯데

베트남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착공식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은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지 3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지하 5층부터 지상 60층에 이르는 에코스마트시티 안에는 롯데의 역량이 총 집결된 스마트 주거 시설과 유통 시설이 자리잡아 향후 베트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는 “투티엠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호찌민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화답하도록 하겠다. 최첨단 기술로 베트남 최고 수준의 스마트 라이프를 제공해 호찌민시 투티엠 지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신 회장 ‘라인 프로젝트’ 현장 방문

신 회장은 8월 29일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인도네시아 반텐 주에서 총 39억 달러(5조 3157억 원)를 투자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롯데케미칼이 자회사인 롯데케미칼타이탄과 합작해 납사크래커(NCC)를 건설하고 기존 폴리에틸렌(PE) 공장과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는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조성 사업이다.

프로젝트 완공 시 연간 에틸렌 100만 톤, 프로필렌(PL) 52만 톤, 폴리프로필렌(PP) 25만 톤 및 하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국내·외에서 연간 55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화학사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또 인도네시아 최초의 납사크래커 건설 사례로 전체 석유화학제품 수요의 50% 가량을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석유화학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은 “롯데케미칼은 동남아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석유화학제품 수요 증가를 선제적으로 예

측하고 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며 “롯데케미칼의 글로벌 사업경쟁력 강화와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동남아 사업 확장에 발맞춰 기반 인프라 구축에도 전념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024년까지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 ‘통합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한다.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와 내년 오픈 예정인 롯데몰 하노이 등 대형 프로젝트 이후 대응할 수 있는 물류 역량을 갖추기 위함이다. 베트남 현지의 신선·냉동 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콜드체인 역량을 강화해 상온·냉장·냉동 보관 및 운송이 가능한 센터로 구축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운송업에 대한 외국인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운송 사업을 확대한다. 자카르타 권역의 운송망 구축과 EPC(설계, 조달, 시공) 물류 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게 롯데글로벌로지스 측 설명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스타벅스, 상생음료 ‘한라문경스위티’ 개발



스타벅스가 동반 성장 위원회, 전국카페 사장협동조합과 함께 개발한 상생음료 ‘한라문경스위티’(사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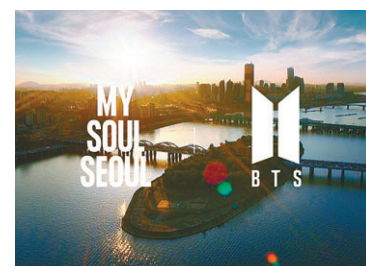
소상공인 카페 100곳에서 선보인다. 제조법과 재료는 소상공인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대중적인 맛의 제주 한라봉과 문경 오미자를 활용했다. 두 우리 농산물의 조합을 통해 스타벅스와 소상공인 카페가 상생으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우리 농산물과 지역 명칭을 음료명에 반영해 지역 농가와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

올리브영, ‘올영세일’ 실시…최대 70% 할인



CJ올리브영이 7일까지 ‘올영세일’ (사진)을 연다. 가을 메이크업을 위한 색조화장품, 피부 보습을 위한 기초화장품, 환경기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식품과 각종 위생용품 등을 총망라해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또 추석 선물을 겨냥해 프리미엄 브랜드 화장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상품, 실속 넘치는 구성의 세트상품 등도 마련했다. 파격적 할인율의 ‘선착순 특가’, 매일 다른 특가 상품을 깜짝 공개하는 ‘오늘의 특가’, 인기 상품을 높은 할인율로 선보이는 ‘단독 특가’ 등으로 구성했다.

방탄소년단 새 서울관광 홍보 티저 공개



서울관광재단은 방탄소년단 서울관광 홍보 영상 티저(사진)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부터 6년째 서울 명예 관광홍보대

사를 맡아 매년 서울관광 공식 홍보영상에 출연하고 있다. 이날 공개한 ‘미식의 밤’, ‘힐링스팟’, ‘인생샷’ 등 티저 3편은 서울 서촌, 남산서울타워, 노들섬을 배경으로 했다. 홍보영상 본편은 16일 ‘미식의 밤’을 시작으로 23일 ‘힐링스팟’, 30일 ‘인생샷’ 본편이 각각 오후 1시에 유튜브 채널 ‘비짓서울tv’에서 공개된다.

HDC아이파크몰, 12일까지 ‘추석선물 기획전’

서울 용산 HDC아이파크몰이 12일까지 ‘온 가족 추석선물 기획전’을 연다. 패션, 뷰티, 리빙, 식음료 등 폭넓은 카테고리별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대폭 늘렸으며, 특별 할인 및 균일가 상품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 대한 부담을 잊고 즐겁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키즈 브랜드가 모여 있는 리빙파크 6층에서는 베네베네, 에프와, 베몽 등 키즈브랜드 가을 상품 20~60% 기획전을 진행하며, 아디다스키즈의 키즈 운동화 균일가 상품과 겨울 아우터 특가 상품을 만날 수 있다. 패션파크 3층에서는 루이까포즈, 아테스토니, 헤지스, 질스튜어트의 스카프를 20~30% 할인 판매한다.

SK에너지, 머핀 포인트 3000점 고객 이벤트



SK에너지는 5일부터 머핀 포인트 3000점을 보유한 머핀 멤버십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을 증정하는 ‘3천 포인트 특권’ 이벤

트(사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객의 취미와 취향을 반영한 특별 한정판 사은품 4종(캠핑의자,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6구, 차량용 청소기, 옥스포드 블루)이 준비됐으며, 머핀 포인트 3000점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원하는 사은품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사은품 신청은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SK 주유소·충전소, 엔크린닷컴 홈페이지, 머핀 앱에서 가능하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AK홀딩스, 제주항공 유증 위해 1300억 EB 발행

(교환사채)

신규 노선 기대감에 26개 기관 참여

애경그룹지주회사 AK홀딩스가 자회사인 제주항공 유상증자를 위해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이 회사는 2일 이사회에서 교환사채 발행 건에 대한 의안을 상정하고 이사회 이사들의 심의를 거쳐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승인했다. 교환사채는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이 일정 시일 지나면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당초 1000억 원 규모를 예상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최근 항공업계 수요 증가 및 제주항공의 차세대 기단 도입(B

737-8) 후 운항거리 확대에 따른 신규 노선 개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예상을 웃도는 다수의 기관 투자자가 참여했고, 총 1300억 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K홀딩스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은 1주당 1만6150원이고, 교환 청구기간은 사채 발행일 3개월 후인 12월 6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27년 8월 6일까지다. 회사 측은 “이번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총 26개 기관의 투자를 받았다”며 “제주항공의 유상증자 청약 금액을 충분히 확보하게 됐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대한항공, 호주서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미국·EU 등도 조속히 심사 진행

대한항공은 1일자로 임의신고국가인 호주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조건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시드니 노선에 판타스항공이라는 대형항공사(FSC)와 젯스타라는 저비용항공사(LCC)가 조만간 해당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 조건없이 승인했다. 호주는 결합 전과 동일한 경쟁환경 유지를 위해 신규 항공사 진입을 요구하는 필수신고국가인 미국이나 EU와 유사한 방식으



로 기업결합심사 검토를 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호주 경쟁당국의 승인을 계기로 다른 미승인 경쟁당국 심사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필수신고국가인 미국, EU, 중국, 일본과 임의신고국가인 영국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